

일주문

진각복지재단 직원연수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혜정 정사는 11월 13~14일 제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직원연수를 개최했다.

웅산 스님 국군간호사관학교 수계법회
웅산 스님 주지 웅산 스님은 11월 23일 대전 호국약천사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일타 스님 열반 11주기 추모다례제
경산 선봉사 주지 항적 스님은 11월 2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일타 스님 열반 11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한다.

로터스월드 후원회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11월 25일 서울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로터스월드 후원회 밤을 개최한다.

광주불교시암연 회장에 성오 스님
마하보리사 주지 성오 스님은 11월 17일 광주불교시암연합회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고창복지관 장수위원장직
고창군 노인복지회관 관장 도완 스님은 11월 17일 복지관에서 장수위원장직을 개설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 캄보디아 봉사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은 12월 22~29일 캄보디아 오드르민제이 주 삼릉시 카세테보피봉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덕현 스님 맑은세상 특별강연
맑고항기롭게 이사장 덕현 스님은 11월 26일 대구 프린스호텔 2층 리젠시홀에서 열리는 '제4회 맑은 세상 한마당 대구 나눔잔치'에서 특별강연한다.

맑은소리맑은나라 사진전
김원희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 대표는 11월 16일 부산 영과도서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열고 (폐사에서의 발견 여래를 품다)발간 행사를 개최했다.

국립국악원 영산재 공연
박일훈 국립국악원 원장은 11월 27일 국립악원 우면당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영산재를 공연한다. (02)580-3300

“불교 박물관 현실부터 살핀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흥 선 스님



남이 해왔던 일들을 잘 계승해 나가겠다. 불교중앙박물관 일은 처음이니 만큼 차분히 살펴 신중하게 할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흥선 스님은 불교계의 성보문화재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는 자격과 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흥선 스님은 “>성보문화재 인식 향상과 >인재확보 >재정 확충 이 세가지는 지방 사찰에서 운영 중인 성보박물관의 활성화를 위

한 대안”이라고도 설명했다.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으로부터 불교중앙박물관장직을 제안 받는 자리에서 박물관에 바라는 점을 묻자 자승 스님은 ‘좋은 전문가를 발탁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내 역할이다’라고 말했다”며 “불교중앙박물관과 성보문화재와 관련한 종단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15일 임명식에서는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도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명장 전달식에서 “보좌진들로부터 10여 명의 인물을 추천 받았으나 흥선 스님만큼 불교중앙박물관장에 적합한 인물은 없었다. 또, 미등 스님은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직을 1년 여 수행하면서 소장직 수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여줬다. 종단의 문화재 관리와 조사·연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1986·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일면 스님이다. 본사는 봉선사. 현재 포천 흥룡사 주지를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10년 고생해야 100년 내다볼 수 있어”

조계종 총책특보단장 정 녘 스님



“불교계 발전을 위해 늘어나는 종단 사업을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도가 심심일만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내겠습니다.”

11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재정보보 겸 총책특보단장에 임명된 정 녘 스님(중앙종회의원)은 임명장 전달식에 이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불교가 사회·문화·복지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연구·사업 등이 필요하다”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 종단의 총책이 꾸준히 실천될 수 있는 재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녘 스님은 “분담금을 인상해 재정을 확충하는 현실은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라며 “종단의 여러 수익사

만원의 혜택을 종단에서 받아간다면 이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녘 스님은 대중이 한마음으로 심심일만 모아 큰 원력을 이루는 경험을 낙산사 화재 복구 과정에서 이미 경험했다. 스님은 “낙산사 복원 불사는 어느 한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낙산사를 찾은 불자·국민이 기와 한 장이라도 마음을 모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지금 10년을 고생해야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다”며 “특보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미래지향적인 총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녘 스님은 총무원 사회부장·재무부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설악산 봉정암 주지, 양양 낙산사 주지 등을 거쳐 현재 총책모임 범화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불교학 수준 한단계 높여겠다”

불교학연구회 박 경 준 회장



“‘생산적 소통·융합’의 장을 만들어 불교학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겠습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11월 13일 한국외대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에서 동국대 불교학과 박경준 교수(사진)가 만장일치로 7대회장에 선출됐다.

박 교수는 “전공분야(불교학)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것이 학회 회원들의 이유인데 이를 위해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회의 공식적 모임을 가지지 않는 것 외에도 소모임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자주 모여 생산적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학연구회는 학회 창립이후부터 정기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자의 논문 2명의 논평자가 참여하도록 해 논평하도록 하고 해당 발표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술대회는 논문발표자의 일방적 발표로 진행되는 데 비해 불교학연구회의 진행은 새로운 시도다. 이후 불교학계에서는 ‘논평이 없으면 엉터리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불교학연구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새로운 풍토가 됐다.

박경준 교수는 “이런 전통을 살려 열린 토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해 불교학 수준을 높여겠다”며 “해주 스님·이종표 교수·본각 스님 등 역대회장님들이 워낙 열심이었기에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불교사회경제론을 전공한 박경준 교수는 실천응용분야의 학문도 다뤄볼 계획이다. 그는 “개인의 안심입명, 열반·해탈도 중요하지만 불교의 사회적 실천도 중요하다. 불교의 사회화 이론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과 방향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설, 윤회설 등 불교의 기초적인 교리와 사상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기획주제도 다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경준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인내대 강사 등을 거쳐 1995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불교문화연구원장, 에코포럼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평론) 편집위원장과 ‘풍경소리’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불교사회경제사상) (아시아의 참여불교) 등이 있으며 주요논문으로는 ‘월시 불교의 사회·경제사상연구’ ‘불교 공업설의 사회학적 함의’와 다수가 있다.

이냐은 기자

동국대 경주캠, 신기숙사·사라림 착공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11월 19일 오후 2시 교내 신기숙사 신축현장에서 ‘신기숙사 및 사라림 신축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이사 성타·수인 스님과 손동진 경주캠퍼스 총장, 최양식 경주시장, 김일현 경주시의회 의장, 박병훈 경주 동창회장, 시공사인 LG(주) 강희용 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기숙사는 면적 1050.63㎡(318평)에 연면적 6666.28㎡(2017평)로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171실(2인1실)을 갖추고 342명 수용하게 된다.

사라림 기숙사는 비구니 학인 스님들을 위한 수련관으로 면적 316.24㎡(96평), 연면적 1373.45㎡(416평)에 지하1층, 지상4층이며, 1·2인실, 다인실 등 6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사장 정련 스님은 차사에서 “오늘 기숙사 착공으로 비구니 스님 수행관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경주캠퍼스가 지역의 으뜸 대학을 넘어서 국내 우수 명문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착공된 신기숙사는 내년 8월 말, 사라림은 내년 5월 말 준공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2011학년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야간)
큰 지혜로 큰 세상을 열어라
더 큰 세상을 이끄는 불교지도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더 큰 지혜를 깨우치십시오

생지장도량 철원심원사 49일 특별천도제
< 유산아(낙태아) 및 자살자 영가 49일 특별천도제 >
1. 유산아(수자령) 및 자살자 영가 천도만은 꼭 해줘야
유산아(수자령)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태중에서 죽은 것이기에 이승의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태아령은 빨리 삼도천을 건너서 불계에 가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공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천도해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쌓입니다. 비록 이름 없고 세상이 햇빛을 보지 못한 유산아, 사산아 일지라도 불교적 생명관으로 볼 때 그들은 분명한 생명체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지성으로 천도하고 영혼을 달래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살이란 자신이 받은 소중한 옷을 스스로 찢는 무거운 죄입니다. 자신이 죽을 때에 죽지 못하고 미리 죽은 영가들은 극락 세계와 단절되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지 않는 한 왕생할 수 없으며 구원을 떠돌다가 자기 명이 다해 죽을 때가 되어서야 환생한다고 합니다. 자살 업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영가 중에 가장 무성계 한을 품고 구원을 떠도는 자살 영가님을 천도해 드리면 어떤 조상신보다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막아 주고 우리에게 복덕과 지혜를 주는 복신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생지장도량 철원 심원사에서는 유산아(수자령) 및 자살영가만을 위한 특별 천도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 하오니 다같이 동참 하시어 이 세상 빛과 이음을 갖지 못한 우리의 유산아 수자령(낙태아영가님)에게 불명(이름)을 지어주어 속세의 한없는 미련을 떨치고 서방정토에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천도공양에 두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하시고 제사에 참석하지 못해도 정성껏 기도합니다.
2. 유산아(수자령) 및 자살자 영가 49일 특별천도제 일정
•입제: 2010년 12월 19일(음 11월14일) 일요일
•초제: 2010년 12월 26일 (음 11월 21일) 일요일
•2제: 2011년 1월 2일 (음 11월 28일) 일요일
•3제: 2011년 1월 9일 (음 12월 6일) 일요일(구병사식)
•4제: 2011년 1월 16일 (음 12월 13일) 일요일
•5제: 2011년 1월 23일 (음 12월 20일)(구병사식)
•6제: 2011년 1월 30일(음 12월 27일) 일요일
•회향: 2011년 2월 6일(음 1월 4일) 일요일
* 3제와 5제때 토요일 철야기도 후 새벽 2시 제사에 구병사식을 합니다.
- 행사기간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철야기도 합니다.
- 기도동참금: 수자령 1위에 7만원 + 2위부터 1만원씩추가
- 농협: 238-01-199000, 국민은행: 324501-04-042961, 농협: 301-0052-7696-91 (수자령, 예금주:심원사)
공양미 5kg 이상 올리시면 영가와 가족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교통편 >> 버스편 : 행사기간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매주 일요일 아침 7시에 조계사 앞에서 심원사행 버스출발
차량예약 : 장목기사 011-263-7809 / 흥보살 019-9406-4406 (차량배차관계로 미리 예약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철원 심원사 전화 033)455-5882, 455-3468 팩스 033) 455-0419